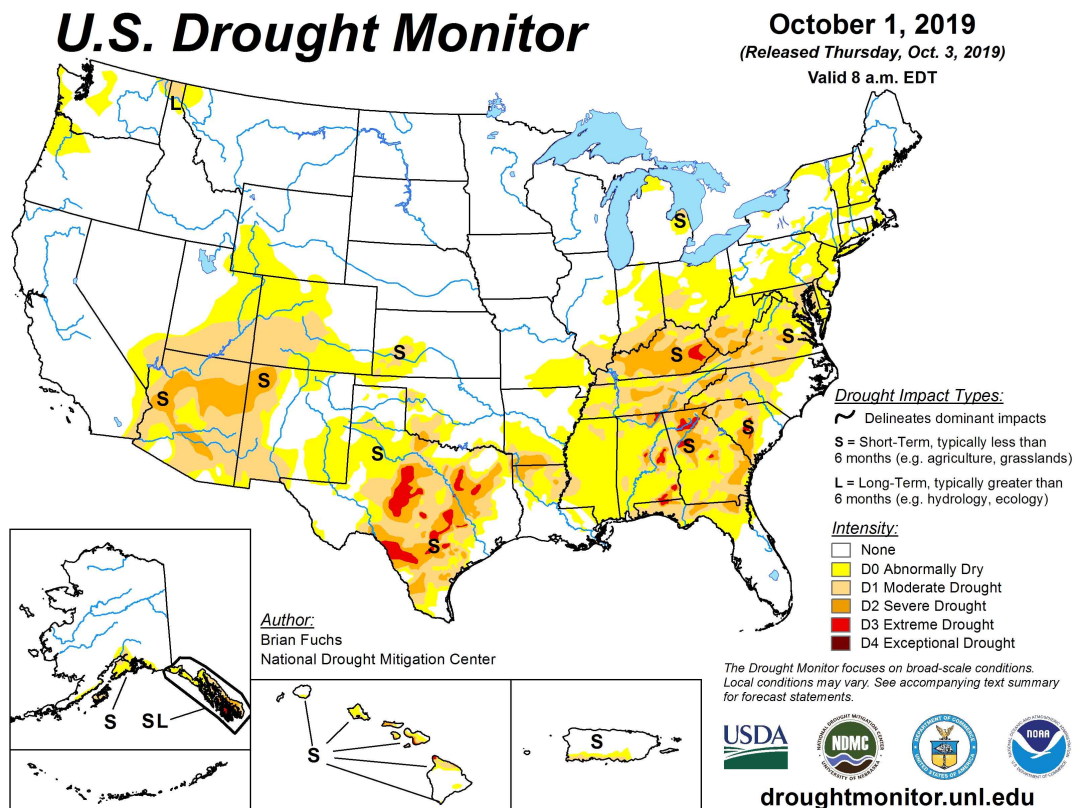


10월 8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80)

□ 미국 기후 현황(9/29~10/5)

옥수수 벨트의 북부와 서부 전체에 내린 흠뻑 젖는 비 (2-4인치 이상)로 물에 잠긴 밭에서 저지대 침수가 발생하여 늦게 파종된 옥수수와 콩의 성숙이 지체되었다. 그렇지만 중서부의 재배기는 10월 초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여름작물이 계속 발달할 수 있었다. 이 비는 대체로 네브라스카 동부에서부터 뉴멕시코 남동부까지의 축을 따라 평원을 가로질러 남서쪽으로도 뻗어갔다. 고원 남부 몇 곳에서는 최고 강수량 (2-4인치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에 남동부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대체로 건조한 날씨와 기록적인 고온이 겹치면서 오하이오 계곡과 대서양 중부에 이르는 먼 북쪽까지 가뭄이 더욱 발달하여 심화되었다. 구체적으로, 평원 남동부에서부터 오하이오 계곡과 남동부 내륙까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15° F 높았다. 한편, 뉴잉글랜드 북부는 날씨가 시원하여 수치가 평년보다 5° F 낮게 유지되었다. 그밖에, 사막 남서부는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여 가을 밭 작업에 유리하였던 반면 북서부는 소나기성 비와 눈이 내려서 기온이 평년 이하였다. 북서부에서는 시원한 소나기성 날씨로 토양 수분은 상승되었지만 겨울밀의 출현과 활착은 지연되었다.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몬타나까지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0° F 이상 낮았다.



□ 농업 현황 요약(9/30~10/6)

나라의 주요 지역이 건조했지만 오대호 지역, 뉴멕시코, 평원, 뉴잉글랜드 북부 일부에는 강한 비가 내렸다. 델타, 대서양 중부, 오하이오 계곡, 미시시피 계곡, 평원 남부, 남동부 일부는 기온이 평년보다 10° F 이상 높았다. 반면, 캘리포니아, 태평양 북서부, 로키 산맥 북부 일부는 기온이 평년보다 10° F 이상 낮았다.

□ 세계 기후 현황(9/29~10/5)

■ 유럽: 유럽 북서부는 가뭄이 더 경감된 반면 발칸 반도 일부는 단기 건조와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또 한 차례 중간-강한 비 (10-90 mm)가 토양 수분을 개선시켜서 겨울 작물 활착에 도움이 되었다. 독일에서는 가뭄이 해소되었고 프랑스도 크게 개선되었다. 북유럽 다른 지역들도 비가 광범위하게 내려서 (10-80 mm) 수분 보유량을 상승시켜서 밀과 유채의 활착에 도움이 되었다. 발칸반도 남부도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소나기 (5-25 mm)가 단기 가뭄을 완화시켜주어 겨울 작물 파종과 활착에 도움이 되었다. 다만 서루마니아와 인근 지방 대부분은 비가 비껴갔다. 지난주에 내린 소나기에도 루마니아 남서부는 60일 총강수량이 지역적으로 평년의 25% 이하에 머물렀다. 나머지 남유럽은, 이탈리아에는 10-60 mm의 비가 겨울 밀을 위한 수분 저장량을 상승시켰고 반면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날씨가 건조하여 여름작물 수확과 겨울 곡류의 이른 파종을 촉진했다.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 전역에 비가 광범위하게 내려서 가뭄이 완화되었던 반면 러시아 남서부는 화창한 날씨로 밀 발달이 촉진되었다. 최근 격심한 단기 건조를 겪었던 우크라이나 남동부 사분면에 중간-강한 비 (10-75 mm)가 가뭄을 완화시켜주었고 겨울 밀 활착을 위해서 아주 필요했던 토양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중부와 서부 나머지 지역에도 중간-강한 소나기 (10-40 mm)가 지난여름 가뭄 이후에 수분 공급량을 개선해주었다. 러시아 서쪽 중부에 비슷한 총량의 강우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단기 가뭄이 완화되었고 겨울 밀 활착 전망이 밝아졌는데 특히 중부 지방의 남쪽 부분이 좋았다. 지난주에 비가 시기적절한 수분을 공급해주었던 러시아의 남부 지방은 화창한 날씨와 평년을 웃도는 기온 (평년보다 최대 5° C 높음)으로 겨울 밀 발달이 촉진되었다. 지역 전체의 주간 평균 기온이 낮은-중간 10도 대 (섭씨)였다는 점에서 겨울 밀은 여전히 영양 생장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강우 중에 늦철 상승이 가져오는 유익이 눈에 띄었다.

■ 동아시아: 북중국 평원과 양쯔 계곡의 서쪽 구역에 보고된 소나기 (25-50 mm 이상)는 여름작물의 수확을 늦추기는 했지만 다음 주에 심게 될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을 위한 수분 보유량을 상승시켜주었다. 한편, 중국 동부와 남부의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와 여름철을 방블케 하는 폭염 (최대 기온이 35° C 이상)으로 여름작물의 성숙과 수확이 촉진되었다. 태풍 미탁은 주중에 중국 남동부를 뒤덮고 주로 저장성에 강한 소나기 (50-150 mm)를 뿌렸다. 이 폭풍은 남한을 통과하기 전에 빠르게 약해졌지만 남한 전체와 북한 동부까지 비슷한 수준의 호우를 내려서 오랜 계절 가뭄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 호주: 서호주의 밀 벨트 북쪽 부분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2주 연속 이어지면서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의 발달을 곤란하게 했다. 반면에 밀 벨트의 남쪽 부분은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려서 (5-20 mm) 생식 또는 종실 비대 중인 밀, 보리, 캐놀라가 혜택을 보았고 작물의 상태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호주 남동부는 화창한 하늘과 적절한 수분 공급 덕분에 남호주와 남빅토리아에서 겨울 작물의 성장이 촉진되었다. 하지만, 빅토리아 북부는



토양 수분 부족으로 밀의 발달이 방해를 받았다. 건조와 가뭄이 계속 우세한 퀴슬랜드 남부와 뉴사우스웨일즈는 작물 전망이 여전히 좋지 못했다. 퀴슬랜드 남부 일부는 국지적 소나기 (1-10 mm, 지역적으로는 25 mm 이상)가 표토를 적시는데 도움을 주었고, 지역의 여름작물 파종을 촉진했지만 나머지 동호주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지배하고 있어서 가뭄 피해를 입은 겨울 작물들의 성숙을 서두르게 하고 초기 파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빅토리아는 평균 기온이 평년 근처였고 퀴슬랜드 남부, 뉴사우스웨일즈, 서호주는 평년보다 1-3° C 높았다. 남호주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5° C 높았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동부 농업지대에 우기가 돌아왔지만 서부 농업 지대는 여전히 가뭄이 문제로 남아 있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중부에서부터 차코와 포르모사를 지나면서 총 10-50 mm의 비가 내렸는데 우루과이와 브라질의 리오그란데 도 술과의 국경 근처에서 최고 수치가 기록되었다. 반면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서쪽과 라 팜파에서부터 북쪽으로 살타 중부까지는 대체로 건조한 조건이 우세했다. 코르도바의 많은 곳이 건조하여 여름작물의 발아에 필요한 수분은 여전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초기 밭 작업이 지연된 것으로 보였다. 남서쪽 밭작물 지역 (라 팜파,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은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 부근이었고 먼 북쪽은 평년보다 3° C 정도 높았다. 기온이 평년 근처이기는 했지만 남부 생산 지역은 온도 변화가 아주 심하여 낮 최고 온도는 높은 20도 대와 낮은-중간 30도 대에 이르렀고 (섭씨) 밤 최저 기온은 영하 근처까지 떨어졌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해바라기 파종은 작년 추세와 비슷하게 10월 3일 현재 38% 끝났다. 아르헨티나에서 최대 썬씨드 생산 지역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현재 파종이 진행 중에 있었지만 예상 지역의 1% 미만만 파종되었을 뿐이었다. 그 보고서는 여름작물과 겨울 곡류가 계절에 맞지 않는 더위와 건조를 겪었다고 언급하면서 계절 강우가 즉각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 브라질: 중앙 브라질의 핵심 생산 지역은 소나기가 내려서 콩과 기타 작물들의 발아에 필요한 수분 수준이 개선되었다. 마토 그로소 중부와 북부에서부터 동쪽으로 토칸티스를 지나 인근 파우이와 마란하오 지역들까지에 내린 총 강수량은 10-50 mm였고 지역적으로는 더 많이 내렸다. 반면에 마토그로소 도 술과, 고이아스와 마토 그로소의 남쪽 구역들에는 다시 건조한 조건이 되어서 충분한 수분을 가진 곳에서는 파종이 촉진되고 있었다. 위에 언급한 지역들 모두 낮 최고 온도는 높은 30도 대에서 40도 범위 (섭씨)에 있었고 증발산 손실량이 높아서 보다 일정한 수준으로 비가 내려야할 필요성이 있었다. 마토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10월 4일 현재 콩 파종율은 약 7%로서 작년 13% 및 5년 평균 9%와 비교하여 낮았다. 한편 상 파울로와 미나스 게라이스 남부는 대체로 건조하고 계절에 맞지 않게 더운 날씨가 사탕무의 빠른 성장을 촉진했고 낮 최고 온도 범위는, 서부는 높은 30도 대 (섭씨), 해안 근처는 중간 20도 대였다. 파라나는 계절에 맞지 않게 건조가 계속되기도 했는데 리오그란데 도 술의 많은 곳에는 다시 강한 소나기 (50-100 mm 또는 그 이상)가 내렸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차 작물 옥수수는 9월 30일 현재 57% 파종되었고 콩 파종은 10% 완결되었다. 한편 밀은 70% 수확되었다. 리오그란데 도 술에서는 옥수수가 52% 파종되었는데 5년 평균 (49%)보다 조금 앞선 것이었다. 밀은 거의 70%가 종실비대-성숙기에 들었지만 수확은 기록되지 않았다.

